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AREA EPISCOPAL OFFICE

77 West Washington Street • Suite 1820 • Chicago, Illinois 60602  
Office: (312) 334-0702

Sally Dyck  
Bishop

E-mail: [bishop.dyck@umcnic.org](mailto:bishop.dyck@umcnic.org)

Rev. Arlene W. Christopherson

Assistant to the Bishop/Director of Connectional Ministries

E-mail: [achristo@umcnic.org](mailto:achristo@umcnic.org)

월요일 아침 영상: 2020년 9월 14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얼마나 더 감당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뉴스에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겹치는 불확실성, 고통, 파괴, 죽음이 쌓여있습니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9월초에 올린 mim입니다.

9월달아, 나는 더 이상의 문제를 원하지 않아, 그냥 들어와 앉아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줘!

누군가 그 mim에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세요.

정말이요? 고통과 재난없이 9월 한 달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 아마도 아닐걸요!

이 mim에는 다른 내용들의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끝없는 성 금요일처럼 느껴집니다 ... 매일 무언가, 매달, 지난 긴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시편 기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관계와 영적인 고통에 대해 은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모든 은유적인 설명에 제가 덧붙일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모든 것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국가적으로 여러 종류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아픔과 고통은 매일 COVID로 인한 새로운 확진자 수와 사망자의 수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소중한 생명이고 점점 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COVID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같은 가족 내에서도 일부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무증상입니다. 노인 뿐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제 친 삼촌은 아니지만 93세에 COVID에서 살아 남은 삼촌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가장 건강한 젊은 여성 중 한 명은 거의 죽다시피 하다가 살아났지만 여전히 그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질병을 피하기 위해 우리 삶은 뒤죽박죽이 되어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대부분 야외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예배당이 크고 작은 인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가족과 친구, 교회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모임에서는 아직도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모임에 대한 일리노이주의 지침에 따라 엄격한 예방 조치를 유지하십시오! 주지사가 신앙 공동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정하는 것을 주저하지만, 사람들이 모일 때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이 설정되어 있고 교회도 또한 이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22 편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있는 경제적 고통, 특히 실직 및 사업 손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경제의 정신적, 정서적 고통은 시편에 나오는 불면증과 상실의 은유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사람들, 특히 유색 인종 공동체가 더 어려운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대학교들, 초중고교, 심지어 유치원까지 학교들이 개학을 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개학을 하는 것이 예전처럼 평범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대면하면 학생과 교사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온라인 수업인 경우에 일하는 부모에게는 어렵고 이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아직 모릅니다. 지금 가족 중에 학생이 없더라도 모든 어린 학생들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해서 COVID 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의 공공 기금을 통해 인터넷의 활용과 여러가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사람들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 효과는 똑같이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유색 인종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인종 차별의 불의를 여러 세대에 걸쳐 견뎌온 사람들에게 좌절감이 계속 쌓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를 "인간보다도 못하다"며 경멸하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우리 나라는 인종

차별의 죄를 가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믿음 이것을 잘 설명해줍니다. (믿음 간결하고 요점이 정리되어 있어 좋아요):

당신이 흑인으로 태어나거나, 흑인으로 자랐거나, 흑인으로 사랑 받거나, 흑인과 결혼하거나, 매일 아침 흑인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느끼는 고통, 상처 또는 혐오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흑인이 아닌 우리들은 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공동체에서 우리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소수의 커뮤니티만 예외였습니다. 북일리노이 연회의 일부 지역은 최근 강풍으로 악영향을 겪었습니다. 어떤 농부들은 기상 조건이 풍작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동부와 남부를 따라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감사한 소식은 우리 연회의 훈련 된 재난 팀이 이미 루이지애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서부의 화재는 마을 전체를 황폐화 시켰고 연기로 인해 하루 종일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기후 변화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닥친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COVID와 관련 없지만 돌아가신 가족. 암 진단을 받은 친구.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 달 동안 가족을 방문 할 수 없고 언제 방문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우리 삶과 지역 사회에서 그토록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돌아가신 분들과 그분들을 위해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상실감이 더욱 커집니다.

교회는 앞날의 불확실성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정기적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가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분명한 것은 예전과 같지는 않을 터인데. 우리 자신들은 이 새로운 현실에 몇 번이나 더 적응하고 받아 드려야 할까요? 목회자들은 지쳤고 일부는 자신의 부르심(calling)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 부르짖듯이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나의 힘, 나의 도움에 서둘러... 그렇다면 회중의 중심에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시적이라면, 이 모든 것을 시편 22편 같은 형식의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으로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지난 몇달 동안의 고통에 영향 받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2편 뒤에 무엇이 올까요? 여러분은 이것을 알기 위해 성경 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편 22편의 끝부분이 시편 23편 이었는데 둘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3편이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 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시편 22편과 확신의 시편 23절 말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 주님은 나의 목자 이십니다! 나는 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나를 푸른 목초지에 눕게 하시고, 나를 고요한 물가로 인도 하시고, 내 영혼을 회복 시키 시며, 그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고통, 상실, 슬픔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할 때 - 그리고 확실히 내가 언급 한 것보다 더 많은 고통속에서라도 이 말씀을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NEVERTHELESS),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Amen!